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배포일자

2025.3.28.

즉시 배포

담당자

손화정 보좌관
010-7113-6565

민주당 경제성장위,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인도·아세안 등 글로벌사우스에서 공급망 대안 모색”

- 미래경제성장전략위·동북아평화협력특위 주관
- 민주당 이언주·위성락·차지호 의원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위성락, 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 이하 경제성장위) 및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락, 이하 동북아평화협력특위)가 공동 주관한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통상외교 미래전략 간담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美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통상·외교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사우스, 특히 아세안(ASEAN) 및 인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의 ‘인도의 외교현황과 한-인도 관계 발전 방향’ ▲윤순구 전 NATO·EU 대사의 ‘대 아세안-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 ▲김형준 KAIST 교수의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인도·유엔대사)의 ‘대(對)인도 외교 통상 강화 방안’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커지면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중요한데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또한,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소부장 등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미국 진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도 우려되는만큼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그동안 아세안, 인도 지역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 며 “아세안, 인도 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위성락 동북아평화협력특위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America First’ 기조 아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다변화된 경제통상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AI 혁신시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협력의 파트너이자 신시장으로 그 중요성을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선진기술력이 이들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만날때 상호 호혜적인 경제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AI 전환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이강의 기술 발전을 이끄는 국가가 있다면,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며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IT·AI 잠재역량을 갖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허성무, 안도걸, 김윤 국회의원 및 외교부 당국자 등도 참석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끝.



더불어민주당 이연주, 위성락, 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연주 최고위원, 이하 경제성장위) 및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락, 이하 동북아평화협력특위)가 공동 주관한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통상외교 미래전략 간담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